헤겔: 정점에 선 근대철학

1. 비판철학과 헤겔
   * + - 1. 칸트는 사물 자체라는 현실과 인식 주체를 분리한다. 이때, 현실은 주체의 손이 가 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인식이란 서로 분리된 양자를 사후적으로 이어주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물자체란 인식을 통해 표상되어야 할 어떤 것이 되지만, 그 표상이 올바른지의 여부는 의식 외부에선 확인 될 수 없다는 난점이 발생한다,
         2. 칸트는 진리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 ‘인식 이전의 인식능력’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헤겔은 ‘인식 이전의 인식능력’을 연구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곤란하다고 본다. 인식능력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식능력을 연구하기는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올바른 인식의 기초나 기준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2. ‘절대정신’의 변증법
   * + - 1. 사물 자체와 주관, 현실과 주체를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근원적인 통일을 처음부터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
         2. 셸링의 ‘절대자’ : 주체와 객체의 동일성을 ‘절대자’라고 생각. (절대자 = 자연)

피히테의 ‘자아’ : 현실과 주체를 모두 자아에 내포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자아’를 절대화 시켜 주체와 객체의 통일을 추구함.

* + - * 1. 헤겔 : 주체-객체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연을 주체화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 각. 그 자체가 객체이기도 한 주체를 설정하는 것. 이를 헤겔은 ‘절대자’, ‘절대정신’이라고 한다.
        2. 헤겔의 절대자는 무엇보다도 ‘정신’이다. 이 정신은 스스로를 외화(外化)하여 자연, 사회, 역사 등의 객체가 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연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나 역사이다. 사회나 역사로 전환된 절대정신은 역사의 발전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발전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 이로써 절대정신은 다시 자기에게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는 절대정신의 실현이란 목적을 향해 발전해 가는 목적론적 과정이라고 한다.
        3. 정신에서 대상으로, 다시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 원환운동 그러나 끝날 때는 조금 더 노은 단계로 고양되는 이 원환운동은 흔히 부정의 부정이란 말로 요약된다. 이것은 정신과 대상의 변증법, 절대자의 변증법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며, 헤겔의 체계 전체를 특정짓고 있는 ‘법칙’이다.
        4. 헤겔과 셸링의 차이점

셸링의 경우 자연과 정신은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것, 하지만 헤겔의 경우는 동일성과 함께 ‘차이’를 포착하려고 한다. 자연과 정신의 차이, 정신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단계상의 차이, 나아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차이를 자기 사상의 틀 안에 포섭하려고 한다.

* + - * 1. 헤겔의 차이에 대한 현대 철학자(푸코, 들뢰즈 등)들의 비판

헤겔의 사상에서 차이란 오직 동일화시키는 힘(동일자)인 절대정신에 포섭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것은 배제되고 억압되고 만다. 이런 점에선 ‘차이’가 차이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겔에게 차이란 사실상 동일자의 포섭능력을 과시하는 요소일 뿐이며, ‘변장한 동일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1. 지식과 진리의 변증법
   * + - 1. 헤겔에게 있어서 현실은 주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 인식의 대상은 주체 내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헤겔은 지식을 “대상에 대한 주체의 연관”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이것은 의식 내에서 만들어지는 연관이다. 헤겔에게 있어서 피히테와는 달리 대상을 정립하는 게 곧 진리는 아니며, 따라서 지식이 진리는 아니라고 한다.
         2. 헤겔에 따르면 지식에 대한 평가기준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의식에 의해서만 마련될 수 있다고 한다. 헤겔은 지식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장이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관점과 유사하게 진리는 이미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볼 수 있다.)

* + - * 1. 지식을 평가는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은 (역사적으로 형성된)지식이 제공한다는 순환논리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순환논리에 있어서 헤겔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진리는 분명 지식과 다르기에 대상-지식 관계의 외부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 자체가 의식 내부에 있는 거라면, 대상과 개념의 일치로 정의되는 진리 또한 의식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식 내부에 지식과 지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두 들어있게 된다. 따라서 의식은 자기 내부에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의식이 이 기준으로 지식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진리의 기준이 되었던 지식 자체도 의식이 스스로 검사하고 다시 평가한다는 말이 된다. 결국 ‘진리’란 이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 자체를 돌이켜 검사하고 정정해 가는 과정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진리’란 의식 혹은 정신 자신의 내적인 관계라고 말한다.
        3. 헤겔에게 있어서 ‘진리’란 절대정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리의 기준을 계속 정정해 가는 과정이란 뜻이다. 즉, 진리를 확인하고 보증해 주는 것은 발전해가는 절대정신 자신인 것이다.